맹미 aka. 티타/맹월/시에스타

쟈! 클립: @FFXIV_JYA

딜 좀 잘 해봐... 너는 딜러잖아...

게임 중 떠올린 헛소리를 주절거리기 위해 생성한 계정입니다. 편의상 일기라고 적긴했으나 아마 날짜까지 세세하게 적는 디테일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 파판이므로 파판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종합 게임 계정이므로 잡다한 장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ORPG/TRPG도 게임 장르로 분류합니다.

스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스포 밟는 것에 둔감하므로 배려가 어렵습니다. 업데이트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컨텐츠는 최대한 필터 걸고 말하지만 자각 없이 뱉는 경우가 잦아 예민하시면 뮤트 및 블락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포 고려 없는 RT가 심하므로 꺼두시길 권장드립니다.

NCP ≥ HL > GL >>>>>> BL

BL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조합을 상당히 가립니다. 여캐가 없는 조합은 제 취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인분들이 하시는 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익스트림즈 팝니다. 저도 먹는 게 있다고요!!

드림, 겹드림 예민하지 않습니다만 의도적인 개그 연성을 제외하고 공식 설정을 과다하게 붕괴하는 걸 싫어합니다.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모르고 드림하는 것은 불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파판은 아직 하는 드림은 없으나 언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PC: 파이널판타지14, 사이퍼즈, 마비노기

Mobile: 명일방주, 작혼

메이플스토리, 클로저스, 프로젝트세카이, 마비노기 모바일, 로드오브히어로즈

과거에 플레이 했고 개인적인 불호로 더는 보고 싶지 않은 장르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건 상관 없지만 제게 직멘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된 내용을 뮤트 키워드에 넣어두었습니다. 언급이 많으신 분을 뮤트를 해두거나 블언블로 이별합니다.

원신, 팰월드, 림버스 컴퍼니 및 '프로젝트 문'의 모든요소 일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언급시 차단합니다.

많은 이유로 파판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탐라에 한 번씩 떠밀려오는 사건사고가 예시겠다. 이건 현재 플레이 중인 유저들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일단 캐릭터를 생성하게 된 계기는 당시 지인들이 제일 많은 초코보 서버가 닫힌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생성만 해두면 언젠가 하고 싶을 때 지인들과 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지금껏 해왔던 게임이 *~메이플스토리, 로스트아크, 사이퍼즈 외 다수~* 게임인 만큼 당시에는 서버가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계정 생성 후 게임을 다운로드하던 중 파판의 직업을 살펴보며 물었는데 이 게임은 캐릭터 하나로 모든 직업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 신기한 개념이었다.

처음 관심을 가진 건 점성술사와 음유시인이었다. (지금은 둘 중 어느 직업도 다룰 줄 모른다.)
딸이 오타쿠 짓을 해도 별 생각이 없는 어머니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맹미는 달, 별, 밤하늘 등에 관련된 것에 환장한다. 일단 점성술사의 스킬 이펙트가 너무 예뻐보였다.

참고로 로스트아크에서도 아르카나와 바드를 했었다. 일단 무기로 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
트페? 아 그 녀석은 좀 그렇다.

아무튼 파판을 시작하며 맹미씨의 파판 어머니와도 같은 월령씨가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었는데 그 중 80퍼센트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당시 확장팩은 칠흑이었고 맹미씨는 효월이 시작할때까지 게임을 접었기 때문이다. 찍먹만 해보고 접게된 이유로는 총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한국게임에 너무 익숙한 상태였다는 점이 진입장벽이었다.
옆동네에서는 스킬을 동시에 날릴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은 스킬을 쓰고 다음 스킬을 쓰기까지 글쿨이라는 게 존재했다. 세상에마상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했다. 맹미 역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인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두 번째, 이게 정녕 RPG가 맞나 싶을 정도의 타격감이 2차 장벽이라고 할 수 있었겠다. 그나마 탐라에서 주워들었던 개선의 방법을 적용한 상태 인데도 말이다.
‘이딴게... 타격감?...’
다양한 게임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타격감이 없는 게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었다. 맹미의 세계에서는 스킬을 팡! 공격이 쿵! 적이 짜부!가 정상이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맹미의 시작 도시가 그리다니아였다.
그야 음유시인을 하려면 궁술사부터 시작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별개로 궁수는 늘 매력적인 직업이니까. 현실이나 게임이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다.
벌레.
지금은 종변을 했다지만 당시 여비에라였던 내 캐릭터의 키만한 긴다리 거미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진짜 최악.

Q.저 진짜 저거랑 싸워요?
A.그래야 한다.

앞서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결국 궁술사를 조금 건드리다가 신규 유저에게 지급되는 클래스 선택권과 스토리 점핑권이 있어서 점성술사를 조금 했었지만 힐러는 적성에 안 맞다는 점을 깨달았고 맹미는 파판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사이퍼즈나 하러 갔다.

이윽고 효월 업데이트와 함께 지인들이 하나 둘 씩 파판 올나잇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도 맹미는 혼자 꿋꿋하게 메이플스토리와와 사이퍼즈를 하다가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시 파판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실상 복귀자 표시가 달려있지만 일반 새싹과 다를 바가 없는 썩은 싹이었다. 맹미씨는 게임을 시작한 목적이 지인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였기 때문에 곧바로 스킵렛츠고를 했다.

‘하핫, 슈퍼 쩜프!’
‘저건 용기사인가요?’

‘아니, 복귀뉴비란다. 무려 칠흑까지의 스토리를 모두 점핑을 해버렸지.’

변명을 해보자면 출근과 게임을 병행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신생을 밀고 있는 맹미씨에게는 파판의 스토리 진행 속도가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채팅은 느려도 글 읽는 속도는 빠른 편인데 아무래도 대사가 있는 경우 자동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영상도 있으니 빨리빨리 한국인의 혼이 견디지 못한 것이다.

스토리를 좋아하는 빛전들아 잠시 진정하자. 맹미는 지금 이렇게 점핑한 본캐를 두고 혼자 접속하는 시간에는 부계정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키워가며 천천히 스토리를 따라가고있다. (이 계기도 나중에 설명하겠다.) 스토리를 보지 않는 플레이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와자와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으니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읽던가 차단하시길 추천한다.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자 적는 글은 아니다.

그렇게 맹미는 엄청난 스킵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흥미로운 책이라고 해도 중간 부분부터 읽으면 그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없듯이 이미 스킵해버린 스토리를 중간부터 읽기에는 흐름을 전혀 모르겠다는 것도 이유중 하나겠다.

현재 황금 스토리도
‘엄마 MBTI 검사해봤어?’
‘응 정상이래~’
이 수준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가 스포에 민감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기억력이 그리 좋지 못해 들어도 잊는다. 언젠가는 이 감동적인 내용을 직접 읽고 눈물 흘릴 F니 걱정하지 마시라.

다시 돌아와서, 효월부터는 적마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비교적 하기 쉽다고 월령씨가 추천해준 것이 제법 취향이어서 아직도 주직?으로 잡고 있다. 맹미는 던전 들어가서 6안녕하세요9 조차 빠르게 칠줄 모르는 상태였는데 텔레포 이후 로딩중이나 영상 보는 중에도 채팅이 된다는 사실도 몰랐다. 당연히 신생부터 천천히 거쳐왔으면 자연스레 늘어났을 상식과 지식을 전혀 모른채 닥돌하려고 했으니

그야말로 자체 하드컨텐츠를 시작한 것이었다. 팞생 힘들게 사네... 이 와중에 하도 성격이 급하니 슬라이드 캐스팅은 알아서 익혔다.

시작한지 몇 개월 동안은 일반 유저들과 매칭해서 플레이 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겁이 많아서 지인들로 꽉꽉 채운 파티가 아니라면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내 지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걸 재미있게 지켜봐주었다. 아니라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뭐라고 한소리 해라.

만약 지인이 없다면 어떻게 했는가? NPC들과 동행했다. 오죽하면 별새를 갖고 싶은데 던전 매칭은 무섭다고 NPC랑 몇십판을 해서 얻었을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일단 나오면 주사위가 구려도 무조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안 운다. 나는 괜찮다.* 아무튼 도와줄 수 있는 인맥도 한계가 있고 NPC 지원이 되지 않는 컨텐츠에 들어가면 남들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기믹을 피했다. 아는 건 없어도 눈치는 빨랐으니 어영부영 살아만 있었고 닉네임 앞에 복귀자 표시가 달려있으니 그냥저냥 매칭된 분들도 그러려니 봐주신 것이라 믿는다. 6감사합니다9

사실 채팅 느린 건 여전해서 지금도 6안녕하세요9를 빠르게 치지 못한다. 그대신 채팅 매크로를 만들어 놨다. 딸깍.

앞서 말했듯 맹미는 혼자서는 파판을 잘 하지 않았다. *과거형인 이유는 요즘은 혼자서도 잘 한다는 뜻이다.* 지인들이 모여있는 부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파판의 시작과 기본 상식을 알려준 어머니 월령씨가 있다면 각자 다른 방향성으로 맹미를 도와주는 아버지가 셋이 있다. 그렇다 맹미씨는 여포와 다를 바 없다. 성격도 비슷한듯.

라브씨
가장 많은 시간을 맹미와 같이 플레이 해주는 사람.(요즘 바빠서 잘 못해준다. 과거형으로 바꿔야할듯 - 26.02.20) 길치인 맹미를 레갈리아에 태우고 에테 찍는 것도 도와주고 풍맥 찍는 것도 곧잘 도와주었다. 고대무기에 진심인 사람. 맨날 제타무기 보여주고 '예쁘지? 같이 고대무기 하지 않을래?' 하고 영업을 곧잘한다. 그래도 영업한 만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착실하게 만드는 과정을 도와준다. 겸사겸사 자기 것도 한다지.

‘이걸 본 당신 제타를 해라’

리운씨

그 시즌의 제작 장비를 우편함에 고이 넣어주신다.(과거형이다. 맹미는 지금 너무 잘 커서 반대로 제작해서 줬다. - 26.02.20) 피증 딱지를 3개나 달고 있는 원딜을 어떻게든 살려낸다. 리운씨 덕분에 여섯번 죽을 거 세번만 죽고 그랬다. 아무래도 즉사 기믹을 맞은 원딜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우편함 확인해봐~’

만쥬씨

맹미의 정신적 지주. 탱커 스승님. 몹몰이부터 주차방법, 생존기 나눠쓰는 법 등 다양한 걸 알려줬다. 근데 알려준다고 다 습득했으면 맹미는 게임 안 하고 하버드를 갔을거다.

NEW > 2025 아버지와 언약했다.

+더보기

참고로 어머니 아버지는 호칭을 정한 것은 실제 유저들의 젠더와 전혀 상관이 없다. 맹미는 젠더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공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보니 요시다씨가 제일 싫어할 유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스토리도 안 읽고 돈으로 내달라고 드러눕는 게으른 유저라니...

괜찮다. 나도 온갖 예쁜 것(ex. 극만신 탈것)을 고난도임무에 넣어두는 요시다씨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싫어할 것이다. (JOKE)

요시다P건강하세요...소켄상건강하세요...영원히파판14해...

맹미가 속한 부대에는 맹미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다른 지인 베리가 있는데, 이 분은 착실하게 메인을 밀면서 진행했었다. 당연하게도 새싹 표시가 맹미보다 조금 더 먼저 떨어져 나갔는데 그 당시

베리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절규하고 있었다. 맹미는 그걸 강건너 불구경처럼 웃고 말았다. 어쩌면 '나는 아직 있는데~' 하고 기만을 했던것도 같다.

바보같으니 새싹은 영원하지 않은데.

당연하게도 맹미의 새싹 표시는 머지 않은날 베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

새싹표시: 너 할만큼 했네 나 갈게ㅋㅋ
맹미: 안돼요. 나를 두고 가지말아요.

다들 잠시 파판 접속이 뜸한 시점에 열심히 채집 제작을 키웠다. 디아뎀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창천거리 부흥도 열심히하며 여러가지 팁을 받아 키우다가 한 번은 지쳐서 '아... 그만 할까?...' 라고 중얼거리니 '지금 해두면 7.0에 각각 10레벨만 올리면 되지만 안 해두면 안 올린만큼 더 올려야 해' 라며 라브씨가 귓가에 속삭여 주더라.

Q.90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진짜 엊그제) 10레벨을 더 올려야 한다고요?
A. 그래

황금 전까지 채제작을 전부 90레벨을 찍고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맹미는 피시방 유저이며 정기점검이면 괜찮지만 대규모 패치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당일은 플레이하기 힘든 편인데 황금 업데이트 당일에도 그랬다. 받을 때마다 오류가 나서 그냥 포기하고 사이퍼즈나 실컷 했던 그날. 나는 다음 날 부터는 업데이트를 현역으로 즐길 수 있게 될 줄 알았다.

한달 가량을 회사-동십자각-병원 세 곳을 빙글빙글 돌았다. 타고난 체질이 약한 편이라 툭하면 감기를 달고 사는데 일정에 없던 루트가 끼어드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나보다. 1월 중순, 말 즈음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밀린 컨텐츠를 따라잡았다. 그렇다고 엄청 자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다. 여전히 동십자각을 맴돌았으니까.

이번 황금에서도 라브씨가 운전기사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편했다. 짱~!

여러가지 이유로 25년도 10월 즈음에 데스크탑을 맞추게 되어 피시방과 작별을 고했다.
집에서 파판이 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돈도 덜 쓰는 일이라서 좋은 것 같다. 무엇보다 부품값이 지금 너무 비싸져서 당시 구매했던 본체가격이 지금은 30만원이 넘게 더 비싸져있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저점 매수를 했다. 고마워요 파판14

이제 집에 있으면 상시 파판 접속중이니 정액제도 3개월짜리를 구매한다. 시간 날때 혹은 땡길때만 부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부캐 풍맥 택시는 얍삐님이 전속으로 도와주신다. 진짜 레전드 온실속 화초로 자랐고 저는 이 온실을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 가짐.

최근에 내일님께 흑마의 기초 딜사이클을 배웠다. 적마가 익숙하고 적마를 해야 그나마 1인분을 하지만 언젠가 스왑이 되는 멋진 캐스터가 꿈이므로... 그리고 제대로 굴리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흑마 재밌긴 하더라. 픽토도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픽토주직이 없다.

픽토 주직은 없는데 내공이 쌓이니까 가이드 영상만 보고도 기본적인 건 이해가 가더라 하지만 역시 손에 익은건 적마라서 픽토는 매끄럽지 못한데 앞으로 다가오는 백은에서 이볼브인지 뭔지 스킬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모양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겠다.

‘이거 7.0극만신 탈것이래요.’

날개를 처음 본 순간 운명을 느꼈지만 2년 뒤에 같이 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봤을 때 나는 누적 시간 43일의 썩은 새싹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게임 같으면 네가 깨봐!! 하며 열을 냈겠지만 파판은 요시다씨도 최코테씨도 하컨에서 날아다니시니 혼자 부들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맹미씨에게 도움을 주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모두 영식에 갈 수 있는 실력자들이다. 그들의 일정상 음식이 죄다 부대금고에서 식어가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보니 맹미를 곧잘 격려해주고 극만신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주었다.

여담이지만 극 조라쟈에 도전하기 전에 일반 조라쟈 기믹조차 이해가 안 된다며 봇들과 들어가서 연습하다가 안 피하는 걸 보고 충격 먹었다. 나는 그동안 너희만 믿어왔는데.

현황을 보고하자면 지금은 목적으로 했던 조라쟈 날개를 얻었고 이후로는 극만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사실 관심은 있는데 이 실력으로 갔다간 욕을 많이 먹고 영생을 누릴 것만 같다.

사실 극퀸도 2회 클리어 전적이 있다.

이건 솔직히 ‘내가해냄’이 아니라 ‘클리어 당함’에 가까워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때는 또 만쥬의 제안이었다.

‘부클팟에 지금 딱 마딜 자리가 비는데 한번 해볼래?’

맹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딱히 탈것이 가지고 싶은 건 아니었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컨 자체에는 관심이 많다.

탐라에서 본 적 있는데

지키지 못한 탱커, sexy

살리지 못한 힐러, holy

딜하지 못한 딜러, 뭐하세요?

의 딜하지 못한 딜러가 나라는 거다.

아무튼 마침 낮에 이유없이 극만신 공략이 보고 싶어져서 재시청했었는데 우연찮게도 저런 제안을 받은거다. 초행인데 괜찮다면 가겠다고 하고 냅다 참여했는데 어째저째 굴러갔었다. 솔직히 만쥬가 리딩해준 거 아니었으면 두배는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극젤레 초행 (살짝 모자란)1릴 하고 왔다.
중간?...은 갔나....?

또 딜하지 못한 딜러가 되어버렸다. 확실히 극발리가 상대적으로 진짜 쉬웠다는걸 느꼈다. 물론 나는 거기서도 딜하지 못한 딜러지만 말이다...

그치만 정말 재미 있었다...! 기믹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파티 열리면 혼자서도 열심히 다니는 중이다.
솔직히 한번 이해하고 나니까 극퀸보다 극젤레가 더 쉬운 것 같음...

체감상 극젤레보다 극어둠이 쉬운 이유는 내가 방향치기 때문이겠지.
3트에 날개 4트에 무기 먹구 지금은 재미로 가고 있다.
뭐 겸사겸사 우상 모으면 다른 직업 무기도 바꿔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극퀸도 추가로 2회 갔다 왔는데 얼음 스킵하면 훨씬 수월해지는 건 맞는듯...
단나사마가 나를 위해 리딩을 해준다더니 찌리리공(피시방인데도) 뜨면서 그대로 사라져서

혼자 엉 울면서 클리어 했다.

이거 약간 자전거 보조바퀴 떼고 처음 탈때 뒤에서 잡아주다가 마는 그런 느낌이었음.

극 토마스를 기다리는 중...
이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길 바라진 않았어요.
지금 빛전들 발등에서 불나잖아요.

만쥬가 나 두드려서 영식 데려가야지 할때마다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내 양쪽 어깨에 악마랑 천사 하나씩 나타남
영식 너무 재밌겠다! 해보고 싶어!! vs. 네 실력으론 그건 무리지 않을까ㅠㅠ

나 내 수준을 알아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ㅠ... 실력이 안돼....
이러면 만쥬가 '님이 가보고 싶다면서요' 하면서 어이없어함.
성가신온나노코 사기언약 당했다고 그러시는데 언약 제안한 건 당신이고 당신은 저를
감당하셔야해요(ㄴㄴ)

딜4 자리가 이렇게 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무도가랑 바이퍼도 하게 되어 모든 산개 자리를 다 갈 수 있는 딜러가
되었어요. 물론 딜싸를 잘 굴린단 소리는 안 했습니다. 날개 구경 세 번은 했나? 흙주사위라서 기대도
안 했고 엄청 갖고 싶다기보다는 날개 다 모으면 마지막에 어떤 날개일지 궁금해서라도 다 모으겠다는
마음으로 정가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정가만큼 모았고 모든 직업군에게 775제 무기를 끼울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팬텀 무기도 병행 했지만... 네 저 상자만 돼지했어요.

우상 150개 드디어 날개를 먹다.



쫌쫌따리 극퀸이랑 극젤레 열리면 가서 우상줍고 있습니다.

날개 못 봤냐는 나쁜 소리는 ㄴㄴ

봤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었을 뿐이다.

극기차는 사장팟 열리면 종종 갑니다. 이제 제가 그럴 수 있는 짬이 찼네요... 작년 이맘때 즈음 저한테 말해줬으면 안 믿었을 듯;

극7.5가 오기 전에 젤레니아는 주사위 굴려서 먹었고 극퀸은 사장팟 열어서 8판째에 먹었습니다.

극7.5 날개만 먹으면 올컴플리트네요.

기다리던 헤딩의 날 저는 연차를 쓰고 쉬었고요. 메인과 연레를 먼저 갔다가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야 헤딩파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3시간동안 이런저런 기믹을 다 보고... 마지막에 힐러 살리고 힐리쓰고 아무튼 헤딩클 했다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땐 즐거웠는데.. 지금 36판째 극날개는 무슨 현자 날개도 한번을 못 봐서 눈물이 나네요.

50판이 넘었고 저는 날개를 한번 구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판 날개 내일님이 드셨음. 질투나.

하지만 저도 미래엔 정가라는 게 가능할 것이므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요즘엔 파티도 잘 없고... 귀찮네요.

지인분의 극에누오 헤딩팟을 따라갔다왔습니다.

일단 헤딩이라고 하셔서 필요할때만 알려드릴까 싶었는데 너무 많이 주절거렸나 싶네요.

그래도 이제 누구에게 기믹 설명을 해줄만큼 성장을 했다는데 내심 뿌듯도 합니다.

트라이 순수하게 즐거웠고 함께 가신분들이 다 유쾌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세기말 극만신

한 자리 남으면 그 직업 들고 들어가서 출발시키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도 익숙해질겸... 할 일 없어서(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여전히 의문인 건 맹미는 인생 최후의 끌어치기를 해도 현역 극만신을 겨우 갈 정도로 실력이 좋지 못한데 만쥬씨는 같이 하컨을 가줄 사람을 구하고 있을텐데 왜 물어봤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물론 관련된 이유를 들었고 납득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의문인 것은 의문인 법이다.*

언약식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몰라서 조금 헤매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이버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하객을 등지고 채팅도 부대채팅으로 돌려놨었다.

추구미는 임창정 결혼식짤 이었는데 잘 모르겠다.



겹지인도 있는데 다 냑자님 옆에 선거다.
분명 맹미는 친구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다.

우리는 종종 언텔의 존재를 까먹고 서로에게 붐따를 날리기도 한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때 게임의 기초를 다져준 건 테리아, 사소한 곳에서 도움을 준 건 비케, 게임 내 금전 및 물질적인 도움을 준 건 로론니와 감자지만 역시 게임에 순수하게 재미를 느끼게 해준 건 만쥬인 것 같다. 만쥬랑 게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록 내 실력이 한참 모자라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만쥬가 정말 가고 싶은 컨텐츠를 망설임 없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게으르고 체력이 약하고 끈기가 부족해서 함께 하자는 것들 전부 관심을 두고도 계속 미루지만 그래도 같이 하자고 권해주는 게 많아서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만쥬가 리마인드 얘기했을때

저희 리마인드 해요??

라고 말해서 레전드 붐따 당했다.

나는 만쥬 성향상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을 줄 알고. . .

리마인드를 했습니다(만쥬 탐라에서 스샷 훔쳐다가 적어야됨)

수많은 붐따 속에서도 나는 너무 재미있게 플레이했다. 역시 컨텐츠를 현역으로 즐긴다는 건 다른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죽었는데 이제는 죽어도 영문을 안다! 칭호《망자의 유산》이 탐이 나는데 지인들한테 100번씩만 죽어달라고 했다가 디코방을 침묵으로 만들었다.
25.10.02 현재 반정도 채웠는데 나머지는 어느 세월에 한담. 갈 수록 사람들 안 죽는데 말이지...
초승달섬의 귀여운 점은 비상돌발 떴을때 똑같은 탈것을 타고 중앙에 모여서 폴짝폴짝 뛴다는 점이다.

12직업을 만렙 찍었다. 꽤 됐는데 일기를 미뤘다. 지금은 망자의 유산도 90번 남짓 남았는데... 귀찮다 나중에 7.31 업데이트 되면 마저 할지도...
개뿔. 다른 거 하느라 바빠서 못하고 있다.

마구반 진작에 끝내고 여유로운 빛전라이프 하는 중. 마구반 채우는 동안 탑이 여러번 걸려서 좀 빨리 채워진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7.4인가 그때 신직업 추가돼서 또 하러 가야된다. 90번 정도면 그때 그 직업들 키우면서 해도 충분히 채울 것 같다. 나중에 해야지... 컨텐츠 너무 많음

7.4 오자마자 단나사마 꼬까옷 음식 보석약 깛이고나서 팬텀무기 빛작하고 극기차갔다.
헉헉 갑자기 우주개척에 눈을 뜨고 틈만나면 오이지스 가서 있다. 매크로 만들어두니까 이렇게 편한 게 또 없다. 초승달섬 언제하지...

《망자의 유산》을 얻다 ^ㅡ^ 근데 아직은《광요의 빛》이 좋아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떨어짐 지금 14통달이라 하나 남았다 헉헉... 신규 지역가면 직업도 늘어나겠지?...

15통달 하고 영원히 가지 않았어요. 또 업데이트가 되면 돌아가야겠지... 팬텀웨폰 노가다를 또 해야겠지...

북부편이 업데이트 됐다.....

확실히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고 느끼는 게 돌발 처음하는데도 죽지 않고 무슨 기믹인지 바로 알아차렸다. 지식레벨 40 찍고 번쩍번쩍 식칼 얻고나니까 하기 귀찮아져서 부캐 열심히하고 있는데 백은 전에 황금 다 봐야돼.....

마침내 7.35가 찾아왔다. 7.38과 함께...

업데이트 첫 날 찍먹으로 노르브란트 순례길 30층까지 등반했다. 사실 욕심은 최대한 많이 가보는 건데 내 실력이 괜찮을지 의문인걸...

월령이랑 만쥬랑 얍삐님이랑 순례길 99층까지 갔다가 템포 못 따라가서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아직도 클리어를 못해봤음.

솔플로 60층까지 등반해놓고 지금 의심이 너무 무서워서 다음층으로 못 나아가는 중...

너진짜으심돼...

그 사이에 쟈들이랑 파티맺고 깨고 매칭팟으로도 가고 8클을 했다.

탈것 얻어서 매우 기쁜 상태.

언젠가 솔로 클리어도 꼭 하고 싶다.

이게 보스전은 괜찮은데 자꾸 쫄몹들한테 죽는다 바보같이... 리레이즈 안 아끼면 될거같은데 바보...!

얍삐님 부캐와 링고님이랑 망궁 50층까지 뚫었다!

순례길 솔플로 100층 달성!!!

솔직히 직전에 70층에서 실수해서 미끄러진 거 마토기랑 노간주나무 파밍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다음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클리어 한 건 숙명이랑 순례의 인도가 전 층 통틀어서 2개씩만 나와서 눈물이 날 뻔 했다. 진짜 모든 은 상자가 내 마음을 배신 했다. 61층 부터는 의심 때문에 바로 리레이즈를 사용하고 시작했다. 매 10층 등반마다 무조건 보험용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또 미끄러지면 태초마을로 돌아가기 때문이겠지... 물론 100층을 등반하는 동안 한 번도 죽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나로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서 사소한 실수가 줄어든다. 솔클 하는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낀 건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때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하느냐가 클리어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100층 등반의 의외의 복병이 10층이었다. 쫄몹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하는데 보통 쫄몹 소환구간에서 극딜기를 아껴둔다거나 평안, 자기강화, 방어강화, 헤이스트 하나씩 뜯고 잡으면 수월했다. 어차피 저층이라서 마토기는 금방 복구된다.

1~9 평온함
10 아 제발 나 아직 100렙 아니라고
11~30 평온함
31~60 평온한데 31층부터 심층이란 거 잊지말고 긴장은 해야한다. 어이없게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구간이고 실제로 죽어봤다. 진짜 어이없게.
61~64 자신이 없다면 유도리있게 명민을 쓰는 게 좋은 것 같다. 의심 때문에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65~69 의심 없어서 긴장이 좀 풀린다. 방심하진 말자.
70 딜싸이클 꼬이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믹 우선 확인해야한다. 잠깐 딴 생각을 한다거나 한눈팔면 죽음이다. 실제로 미끄러져봤다. 뼈아프더라. 나를 믿고 리레이즈도 안 깠었다. 바보.
71~80 8클하면서 하도 자율주행 했더니 부담 없었다. 그래도 리레이즈는 꼭꼭 써야한다.
81~89 순례자의 인도, 숙명만 최대한 사용하는 일 없도록 적변형, 함정제거, 사이트로를 필요하면 제깍 써줬다. 적대체 적감소도 유용하다.
90 이게 초반에 클리어 횟수 적을때 굉장히 헷갈렸는데 가로,세로 기믹을 사각형 1,3 & 2,4로 인지하니까 굉장히 쉬웠다. 방향치는 차라리 이 방법을 추천.
91~98 순서는 알아서 하는 게 좋다. 숙명이 두개라면 난감한 구간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용하기. 하지만 되도록이면 뒤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 91~93은 생각보다 무난한 편이라 되도록 자율주행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99 원래 기믹 리딩 담당이라서 쉬웠다. 애초에 한번이라도 도달했다면 연습도 할 수 있게 해주니 얘만큼 만만한 것도 없다.
100층이다 야호!

유독 잠이 안 오던날 작정하고 망궁100층까지 갔다.
목적은 당연히 킨나무기. 리퍼 낫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진짜 마음에든다.
당장 얻고 싶은 것을 얻었으니 또 가진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순례길과 다르게 맵이 전체적으로 어둡다보니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극만신 파딱이 영식을 가도 되는걸까~

2026.02.27

Coming Soon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 생일이더라고요.



와! 깨짐 당했다!

그렇게 병득설을 입증했어요.

귀걸이를 먹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시다.

만쥬: 내가 먹여준거라고.

1층 연습파티가 좀처럼 가기 힘드네요...

아무래도 하컨러들 1,2층은 무난히 넘기고 지금 다 3층 4층 연습하고 있을테니까

사실 1층도 클리어 할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왕 찍먹하는 김에 2층도 구경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예요.

어느덧 시작한지 3주차... 낱장으로 반지를 바꿨습니다.

2층은 2릴 2음식 했고 분단을 보기만 한 상태네요.

03.13

1선점 안정화 파티를 올렸는데 탱커가 너무 안 모여서 현상금을 걸었더니 클리어를 했...다?...



완료 스샷을 못 찍었어요. 심지어 1상팟이었다고? 근데 저는 상무랑 다를바가 없었죠.

6흙흙 배지기9

애초에 이번주 낱장 먹은 게 어디임.

실력향상을 위해... 3층 공부를 해보려합니다.

1층 연습을 추가로 했습니다. 박쥐산책만 어케 더 깎으면 될 것 같아요. 로그 색깔 바꿨다.

2층 클자 연습팟을 갔다가 경악하고 왔습니다. ~1선점에서 여러번 터져서 뭐지? 뭐지? 하다가 아 여기서 더 진도 못 나가면 쫑내야겠다 하고 막트하는데 거기서 터지고나서 파티장님이 먼저 쫑 선언을 해주셔서 속으로 6감사합니다9 했습니다. 45분동안 어떻게 분단을 한번 밖에 못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것도 물감옥 깨고 광역에 딜러들만 다댐지고 힐리로 강제로 본거라서 솔직히 물감옥까지밖에 못 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적었는데 그 사이 만쥬가 데려가줘서 3층 초행팟을 다녀왔고 챔피언메테오까지 봤다네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부분도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초행팟을 찾아갔고 여기서는 메테오레인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마땅한 파티가 없어서 또 연습겸 초행팟을 갔고 여기서도 챔피언메테오를 봤습니다. 여기서 봤다의 기준은 하지는 못하고 진짜 봤다는 것 뿐입니다.

사실 파티가 없으면 직접 열면 되는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저는 성격이 급한데다가 변덕이 심해서 기다리는걸 잘 못합니다.

03.22

그렇게 초행팟만 네번 갔던 저는 슬슬 챔메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1릴 진도사장팟을 여는 충동적 결정을 했고 모집한지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모집이 완료되어 출발했습니다. 제가 적어놓았던 진도는 궁무 안정화였었고요. 그렇게 30분도 지나지 않아 클각을 보게 되었고 10퍼 남은 타이런트의 피통을 보고는 직원분들의 다급한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깨요?

샤갈! 아니 진도팟에서 클각을 볼 줄 몰랐어요ㅠㅠ 당연하게도 클각클인지 자살인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 채팅 진짜 느립니다.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깨요'라는 단 두글자를 적었고 '확인'이라는 답변과 함께 진짜로 클리어 영상이 떠버리게 됩니다.

와... 유능한 직원들은 이런 사장을 데리고도 클리어를 하는구나.

저의 최대 진도가 분명 챔피언 메테오를 찍먹해본 거였는데 덜컥 클리어를 해버리니 영상을 보면서 멍하니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좋긴한데 복잡 미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딴 게(본인) 방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다급한 외침이 밀려 오더라고요. 모집을 1릴로 팠으니 1클만 더 하면 바로 놓아드리겠다고 하고 1클 더하고 쫑했어요...

아 큰일 났다... 나 분명 진도사장팟을 팠는데...

사실 이거 클리어도 다른 딜러분들이 딜통나무를 엄청나게 들어서 본거지 저는 진짜 한 게 없었다는 게 문제겠지요... 아니면 전멸기였을텐데... 이것 참...

그래도 무도가님이 지금까지 모신 사장님중에서는 가장 잘 했다며 응원해주셨어요.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많은 힘을 주었답니다...

아 진짜 정말 엄청 큰일났다.....

0324

네

아무리 생각해도 3층을 파밍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자가 되어버린 저는 연습용 사장팟을 모아야하나 고민하던 중

어차피 화요일이니 올포기 사장팟을 열게 됩니다.

to be continued...

얼레벌레 끝이나고 됏이가 됐습니다.

그뿐입니다.

실력? 뭔가 갈수록 바보가 되는것 같음. 이보세요.

ㅠㅠ하 이따위 실력으로 파밍을 가도 되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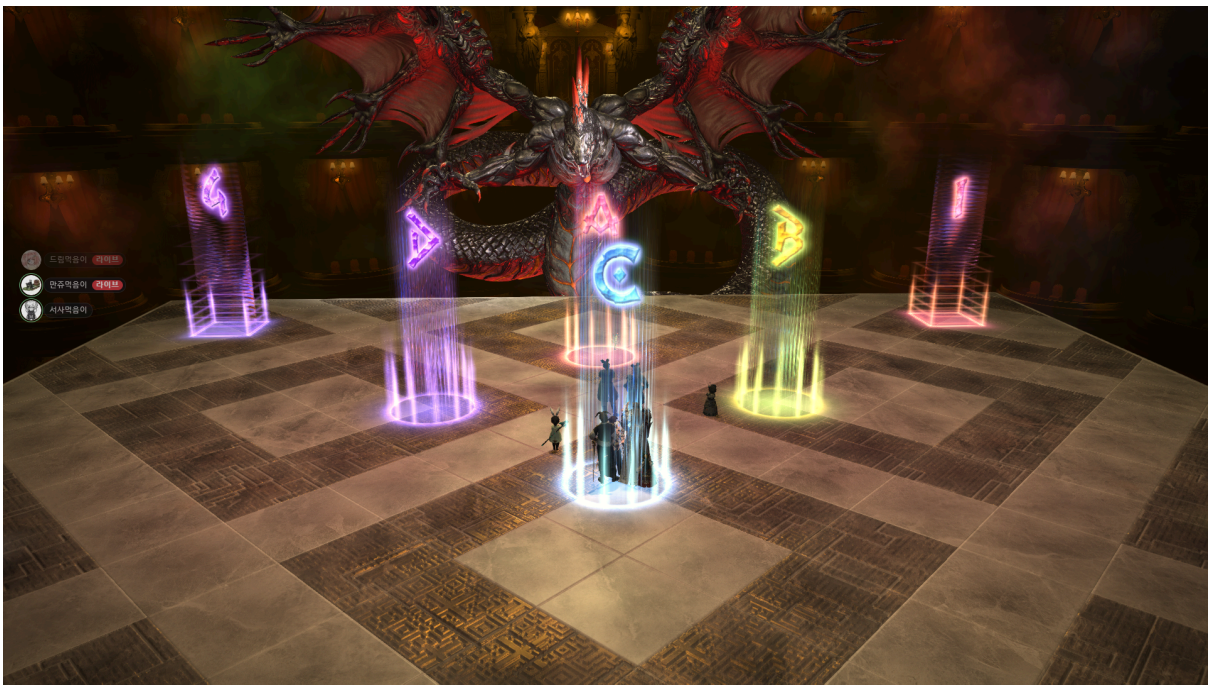
안 갈순 없어 나 개허접 적마에서 허접 적마로 승급해야한다고.

0405

4층 초행을 가다...

또 스샷을 까먹었다고!!!

헬퍼로 오신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반릴하고 쫑했는데

어..어디까지했더라 후기까지 가까스로 넘기고서 터진

그리고 영원히 중기 연습을 한

진짜 정신하나도 없고 개아프네요...

반릴하고 한분이 식사가신다고 쫑이나서 1릴짜리 초행팟 갔다왔더니 앱띵번즈만 들으면 토할거 같애요.

4/7~기력이 쇠하여 화요일에 1-2파티를 들어갔습니다.

2층에서 영원히 재시작을 하여 결국 쫑이났고요.

저는 결국 2층만 3층만 파티를 가게 되었어요.

3층 파티를 방황하다 출근이다 뭐다 시간이 애매해서 결국 낱장만 줍는 사장팟을 열었어요.

1트클하고 쿨하게 수당드림... 4층도 트라이 해야되는데

4/10

4층... 말기트로 사장팟 열었고... 후반에서 바보가 되어버림

'아르카디아 바보'

4/14

네 저의 1-3파밍은 망했고요. (1-3파티가 2층에서 터졌고 2~파티가 3층에서 터졌습니다.)

또 3층을 깡으로 가야한다니...

정녕 이 고통을 끝내는법은 4층을 클리어해서 1-4를 가는법 밖에는 없는 겁니까?

ㄴ만쥬:그래

4/23

1-3 파밍에서 드디어 3층까지 쫑 안나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다음날 4층 진도 사장팟 있어서 오늘 안에 못 끝냈으면 그냥 낱장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4/24

여러분!!

저 됐어요!!

클자! 됐어요!!!





무기는 바로 먹고 싶으니 다음주도 사장팟입니다.

제가 살면서 풀비스라는 걸 해보고 오래살고 볼 일이네요.

마치며...

이렇게 자그마치 2개월의 여정이 끝이났습니다. 물론 파밍은 계속 갈거지만요.

만쥬가 없으면 절대로 다음층으로 나아가지 않기도 했고 파티 들어가서 억겁의 기다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무숙 매칭 기다리는 게 버거워서 탱커 배운 사람) + 직장인 스케줄 상 되는 시간에만 가서 2개월 동안 영식 가지 않은 날이 간 날 보다 배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쥬에게 많은 감사를 돌리고 싶네요.
1층부터 저에게 끊임 없는 독려와 도발을 걸어 4층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죠. 이를테면...

1층은 쉽다, 너 뱀프언니한테 짓밟히고 싶다며 하면서 첫 영식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고...
1층 클리어를 하고나니 2층도 할만하다 너 '잘가라 맹전자' 안 들을거냐면서 꼬셨고...
2층 클리어로 만족하려고 했더니 3층을 해야 실력이 늘어난다. 너 8.0에서도 개허접 적마로 살거냐 하고 도발을 걸었고요...
3층을 클리어하니 4층까지 해야지 3층 깼으면 할 수 있다를 시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층 초행에 함께 가서 제 불안감을 낮춰줬어요. *네 제가 언강자 분리불안이 있어서.*

진짜 4층은 공략영상 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만쥬도 당시에는 직장일로 바빴고 평소에도 시간되면 딱딱 자러 가는 사람이라서 늦게까지 시간내서 설명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 되더라고요... 그치만 만쥬도 나름 저를 영식에 담군 책임감이란게 있었기 때문에 신경써준 거겠죠. 다시 생각해봐도 두번 해줄 수 있는 케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아니라서 더욱 더 고마웠어요...

물론 대가를 지불하기는 했으나 직원으로 와주셔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면서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의 첫 영식, 많이 가도 2층까지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4층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팟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저도 종종 그 부정적 대상이 되기도 했겠죠.

제가 본격적으로 하컨 입문을 한 것이 극조라쟈가 나온지 조금 지났을 시점(극 젤레 패치 몇주 전)의 극발리가르만다 였던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당시엔 그것도 참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26.10.10~13

세기말이죠.

헤비1층 라브 초행 따라서 다녀왔어요.

픽토맨서 연습으로 좀 해보고...

기공으로도 한판하고

학자로도 해봤는데 학자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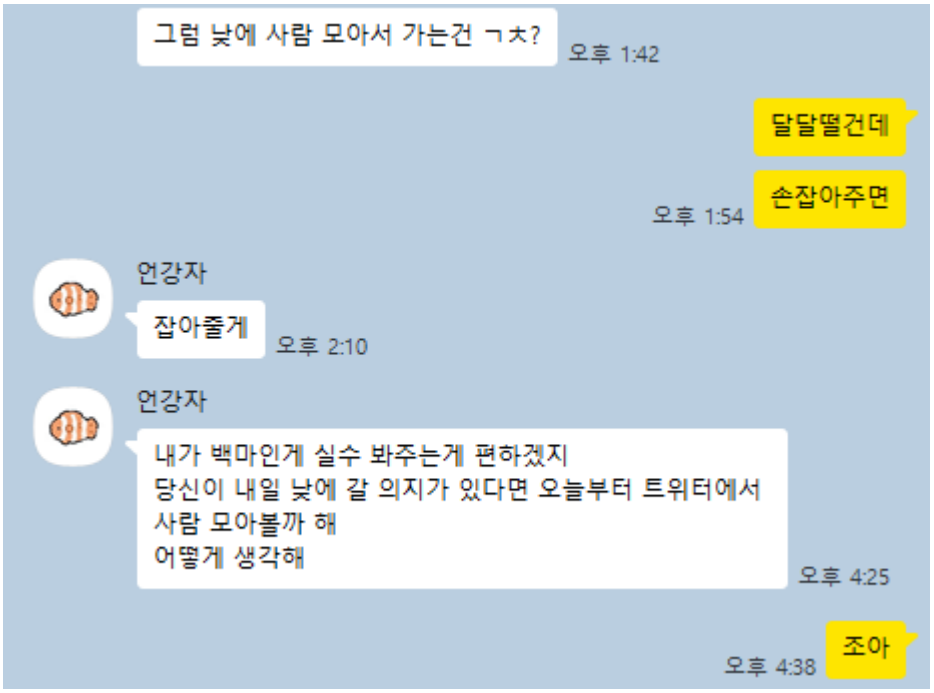
나 하나 케어하기도 힘든데 파티원도 확인해야한다는 점이 정말로 어렵다...

네 결론만 말하자면 진짜 절렉산더를 갔다왔습니다.

▶더보기

세기말에 할 것이 없어진 빛전들(물론 저는 부캐로 얼른 스토리를 봐야하지만) 슬슬 절도 찍먹을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늘 두런두런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26년 11월 7일



무슨 객기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모집을 했습니다. 만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걍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며 우리 갈거지? 그럴거지? 하다가 마치 하룻밤의 실수마냥 갑자기 이런(사실 지금 갔다 오자마자 글을 적고 있어서 정신머리가 없어요.)

만쥬는 절렉을 무척 좋아하지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런 짤도 만들며 늘 저를 유혹했습니다.
사실은 자꾸 제 눈 앞에 절렉 무기 보여줬어요. 열받게.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잘 알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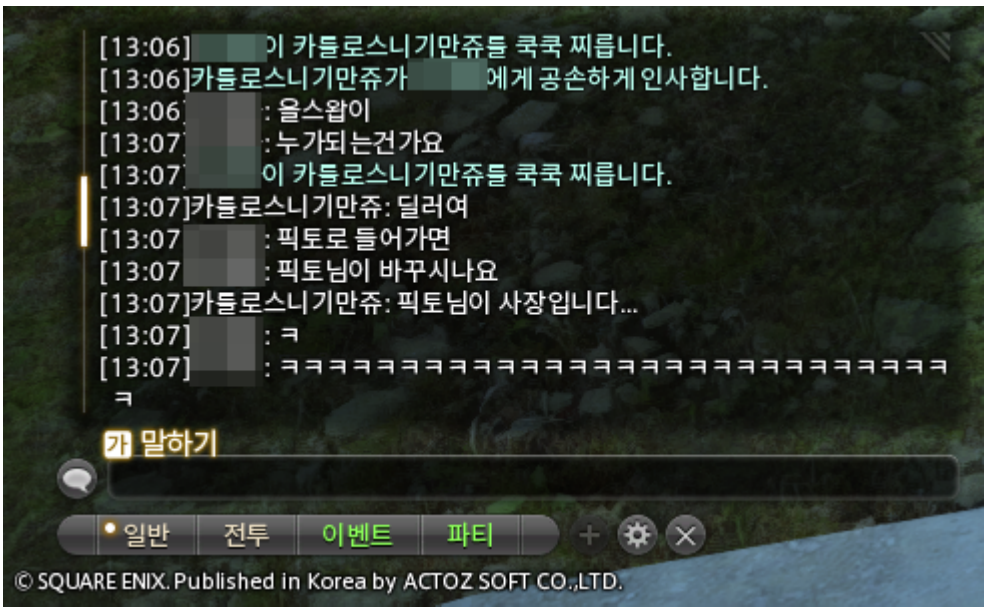
아무튼 7일 모집은 한 자리만 공석인채 출발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만쥬는 딜러 한분을 건져 오기 위해 초코보 림사에서 고성방가를 했어요. (외치기로 파티 홍보했단 소리)

고놈은 미끼를 던졌고 물어버린 딜러님이 계셨던 겁니다. 근데 좀 웃겼던 일이

원래 이 파티는 제가 열어두고 있다가 만쥬가 처음에 모집했던 거라 파티장을 넘겼단 말이죠. 제가 열었던 탓에 (사장:픽토)라는 글씨가 안 적혀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


[13:06] 이 카들로스니기만쥬들 쿡쿡 찌릅니다.
[13:06]카들로스니기만쥬가 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13:06] : 을스왑이
[13:07] : 누가되는건가요
[13:07] 이 카들로스니기만쥬들 쿡쿡 찌릅니다.
[13:07]카들로스니기만쥬: 딜러여
[13:07] : 픽토로 들어가면
[13:07] : 픽토님이 바꾸시나요
[13:07]카들로스니기만쥬: 픽토님이 사장입니다...
[13:07] : ㅋ
[13:07] : ㅋㅋㅋ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웜홀이 뭔데요?

ㄴ 네 기믹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절이란건 아이돌 + 뮤지컬 배우 같은거군요.
칼군무도 춰야되는데 동시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쉐어도 맞고 산개도하고 기믹 유도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등도 긁어주고 아무튼요.

운이 좋아서 정말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공부해서 뒷 부분까지 보러 가야겠죠... 와 근데 진짜 기믹피하랴 뭐하랴 하니까 딜싸이클을 뭔 재즈처럼 굴리게 되더라고요. 절클하신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차행도 다녀왔습니다.

어찌저찌 하다보니까 4페까지 갔었는데 4페 진입하자마자 다시 1페로 돌아가게 됐어요.
맹월! 이것봐 태초 마을이야!
살액: ㅎㅇ

90분이 지나가니까 이제 2페에서도 머리가 안 굴러가더라고요.



짤 만들어 달랬다니 만들어주는 언강자

와 절도 같이 가주고 짤도 만들어준다.

다음엔 얼레벌레 클리어 할 수 있게 공부 또 열심히 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헛소리 구경하기 >> Click!

컨텐츠를 현역으로 즐기고 싶어 스킵한 스토리가 궁금해서 천천히 키울 심산으로 부캐를 만들었다. 본캐와 같은 서버인 것은 역시 부대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말이 부대지원이지 일단 본캐에서 나온 아이템이나 길을 옮기기 좋다. 부대금고 짱.

부캐를 처음 생성했을 때는 정말 메인스토리만 볼 생각으로 만들었지만 창천은 용기사로 밀어달라는 지인의 말에 부랴부랴 창술사를 체득하고 레벨링을 하다보니 본캐에서 안 해봤던 직업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결국 본캐로 모험록을 뜯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아무튼 저렙 구간부터 착실하게 올리는 건 부캐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엇보다 본캐로 그 긴 구간을 스킵했으니 던전의 길이라던가 몹의 기믹을 도무지 모르겠어 그걸 익히기 위해서라도 반복적으로 던전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나 신생 던전들은 길이 중구난방이라 여전히 너무 어렵다. 맹미는 타고난 길치(굳이 따지자면 방향치)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는 길도 어느새 반대로 가고 있다. 진짜 아직도 텔레포 쓰고 나면 가야되는 방향의 반대로 기가막히게 가고 있다. 이걸 의식해서 반대로 가면 되지 않냐고 물어볼 텐데 그걸 알 정도였으면 방향치가 아니었겠지...

신생을 마무리 지은 나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친 그라하티아, 더 미친 울다하 독감자들, 나를 지키겠다고 희생각을 재는 새벽의 혈맹...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음. 크리스탈 브레이브!!!!!!!!!!!!!!!!!! (악!!!!!!!!!!!!!!!!!!!!!!!)

창천을 마무리 지은 나도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젠장 이놈의 이야기는 언제쯤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아픔이 너무 깊다.

잡퀘스트 *~이래서 일기는 그날 바로 적어야하는데~*

검술사: 너희 사랑 전혀 응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도끼술사: 어떤 애가 있었는데... 도중에 지루해서 스킵했습니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 없었음...

격투사: 할아버지 너무 주책바가지세요.

창술사: 하? 이몸은 장차 용기사가 될 몸이시다.

쌍검사: 닌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너희 셋 조합이 좋은데 그냥 평생 쌍검사 하면 안 될까?

궁술사: 귀여운 여코테가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네...

비술사: 6기억난류9 였는데 타타루 비술사 도전기에서 어렴풋이 떠오름... 그런 때도 있었죠.

나이트: 약간 전형적인 RPG류 게임 클리셰 스토리? 2025년에 보기엔 재미가 없는 게 맞는듯.

전사: 호기심 많은 녀석이랑 원초의 혼이 어쩌구...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용기사: 창천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근데 여캐 잡룩 왜이래요? 배탈날 것 같음.

몽크: 아니 입던 옷을 그냥 벗어 준다고요? 땀... 땀 냄새 나...

사무라이: 왜.

닌자: 님 진짜 이상해요.

백마도사: 바쁠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저는 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도요...?

학자: 수상한 톤베리와 스리토 카리토님의 행방불명

음유시인: 활을 못 쏘게된 음유시인이 다시 활을 쏘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소환사: 정말 지루하고 야미트라님이 아름다우세요.

흑마도사: 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중에 그 연례 그거랑 연관 있다는 거죠 이게?

적마도사: 시룬 티아 스승님 미간이 마음에 들고 오지콤이 될 것 같아요.

메인 퀘스트

네? 제가요? 갑자기요? 하이델린 맙소사의 연속이었다.
otp를 걸지 않아 하늘사도에게 해킹당한 죽은크레드를 산크레드로 돌려놓는 여정.

크리스탈 타워... 미친 그라하 티아 나한테 고록 박고 계펑했음
나는 이제 애가 다시 나오는 확장팩까지 가슴이 비어있는 채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타타루는 자신의 역할로 충분한데 모두가 싸우는데 자기는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버렸나봐... 마음 너무 안 좋음... 너는 이미 최고란다. 너 아니면 새벽이 안 굴러가.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독살을 대놓고해요.
텔레지 아델레지 수염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었는데 라우반이 반갈죽을 해버렸다.
나도 다음엔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말해야겠다.

진짜 오타쿠적으로 룽한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음.
진짜 정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왜 희망의 등불이야.
나... 나 뭐돼?...

오르슈팡이 든든한 내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드림이 많은지 알 것만 같아.

잡담

맹미: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루즈하고 지루한 감이 있어요.
라브: 각각 확장팩은 보통 10레벨만 올리면 되는데 신생은 50이나 올려야 되잖아요. 당연한거예요.
맹미: 어라? 그렇네?

만쥬: 빨리 황금 봐줘
맹미: 나 아직 신생이라고

후기

희망의 등불이 끝났어요...

진짜 너무... 너무 마음 안 좋아...

이러고 창천을 가야하는데 끝나자마자 전부 잡쿼 열려서 이걸로 진정 좀 하고 가야할듯

시작하기 앞서... ▶바로가기

용기사로 스토리 밀면 재밌다고 해서 기대하는 중입니다.

암흑기사도 기대중입니다. 프레이가 대체 뭐길래...

ㄴ 신생이 그렇게 끝날줄은 몰랐지.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잡퀘스트

나이트: 진짜 지루한데... 조금 흥미가 생겨요. 안 죽었어? 죽은척이야??/이게 무슨 사혼의 구슬조각도 아니고 장비조각

전사: 내 안의 원초의 혼이 깨어난다. 아 모르겠고 전사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이 루가딘 남성이 왕크고 왕귀여워요./우리 곰돌이가 원초의 혼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기특하다.

암흑기사: 저 혹시 기억을 잃어버렸나요? 왜 나를 애절하게 부르나요? 뭔데? 프레이가 뭔데? 자꾸 뭔가 사연있는 것처럼 굴어요. 주변에서도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고. 아니 진짜 뭐임?/아 사연있는 건 나였구나 그랬구나.../리엘이 너무 내 딸같아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진짜 엄마 나옴. 죄송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굴거면 내가 엄마할래/얘들아 제발 대화라는 걸...아니 그래됐다.../보고야 말았습니다 미친척하는 여자... 아무리봐도 딸 지키려고 악역을 자처한 걸로 보임.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용시전쟁 끝나고... ... 아아....

건브레이커: 호위 퀘스트 스킵도 안 되는 거 지금까지 몇번을 했는지 모르겠음 (다른 서버 부캐들 전장한다고 건브는 받아놓음) 다음 확장팩에 계속 됩니다 튜비컨티뉴

용기사: 진짜 가족이란 건 뭘까요? 바보... 바보... 야!돌머리용기사!!!!!/이슈가르드는 최악이에/이 친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잡퀘라는 것이 n.0에 전부 볼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이후 추가된 스토리를 보고 다시 보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몽크: 미코테 짱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파의 스파이었다고요?!/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아닌거야? 뭐든 음과 양의 조합이 중요하긴 하죠./나보고 부하가 되란다. 나 빛전인데.

사무라이: 미친독감자가 여기도 나오네요. 라라펠이라는 종족은 뭘까요? 작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표독스러워서 수위조절이란 걸 해주는 걸까요?/모모지고가 사기꾼이랜다. 보이는 것보다 사기꾼이 가까이 있습니다./할아버지 자꾸 오늘내일하심

닌자: 여우라 츤데레 공주님이 캬옹캬옹 해주는게 포상으로 느껴져요./

백마도사:

학자: 할가 톨가는 샤갈데레고 스리토 카리토님 사랑해요.

점성술사: 32렙 퀘 하면서 점성 변경전 카드가 한장씩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다른 느낌? 근데 이전엔 어땠는지 몰라서 그냥 추측한 사람만 됨. /젊은여성꼰대라는 속성은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네 레베바님 사랑한다고요.

음유시인: 죄송한데 두 분 저 빼고 멘션해주실래요?/샌슨 개빡친 와중에 기델로 바나나 먹방같음 얘네 조합 재밌네요./샌슨 자꾸 후회공?수? 모먼트를 보여주심 제발 서로에게 솔직하세요.

기공사: 저 조이한테 배울래요 조이한테 배우게 해주세요 제발./어딜가도 개비가 문제군요. 저도 장녀로써 개비때문에 많이 힘들었습죠.../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개비가 아니었네요... 귀가 길쭉한 종족은 왤케 표독스러운 겁니까?(전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있습니다.)/

소환사: 아씨엔이 계속나와요... 자꾸 자꾸 나를 공격해요... 바하무트를 어쩌고 했어요.../야미트라가 저를 속였어요. 깜찍하네요.

흑마도사: 자이아한테 계속 꼽받는데 억울합니다. 여코테였으면 안 억울했을 것 같음 죄송해요. 그렇다고 자이아가 여캐이길 바라는 건 아님./내 잘못 아니라고 삼만번 말했다. 무도해골백만개/그래도 사과했으니까 됐다.

적마도사: 오늘 처음 본 여중휴가 나를 잘 따르는 사건. 시룬 티아 스승님은 놀리는 재미가 있다./시룬 티아 스승님도 아리아를 놀리는데 그냥 뭐 다 같이 놀리고 놀리는 세계관

채제작까지 다 적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었다.

신생 연금술사

신생+창천 재봉사

창천 보석공예가

스토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셋 다 사랑이야기임

사랑이란 좋은 거야...

메인 퀘스트



올것이 와버렸다. 나 벌써 너무 힘들다.

에마넬랭볼때마다 아이고 저 화상!

이젤이 귀엽고 에스티니앙이 공주(공포의 주둥아리)네요.

엘레젠이 가득한 곳에서 뾰족귀라길래 혼혈이겠거니 했는데 힐다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이름은 익숙하지만 외형을 몰랐슨.

야슈톨라가 시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이거였군요. 대충 그럴 것 같다곤 생각했는데...

아니 오르슈팡이 가는 건 알고 있었어 그치만 그렇게 그런식으로 갈줄은. 진짜 구라치지마 제발

이젤: 그래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소녀가 눈밭 한 가운데에서 얼어붙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샤갈이러고 지금 백은 트레일러 연출을 그렇게했다고요??????????????????구라치지마 진짜

에스티니앙: 잘 가라 얼음의 무녀

└야!!!

야슈톨라: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눈'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에스티니앙: 쓸데없는 소리...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불꽃마저 삼켜 없애주지.

(나오라가 끝난 뒤)

에스티니앙: 끄아아아악!!!!!!!!!!!

맹: 야!!

3.0까지의 후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비록 또 에스티니앙을 되찾으러 뺑이를 쳐야하지만...

아르르버트가 생각보다 일찍 나오는군요. 저는 칠흑때나 나올줄 알았어.

빌드업이 상당히 오래된거였구나 와 이거 업데이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다음 내용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산크레드 너츠이터 밈은 생각보다 오래 된 거군요. 심지어 공식이 제대로 말아준 거구나 개웃기네 이거.

한편 스토리: 이런 성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ㄴ뭔데 또. 아니 이거 각도가 무슨 아니; 누가봐도 칼빵 놓을 것 같 샤갈!!!!

에스티니핑 몸에서 천도 복숭아 떼어낼 때 이젤이랑 오르슈팡이 도와준 거 너무 눈물이 나서 진짜 엉하고 울었음

에마넬랭의 성장 서사 이것도 꽤 좋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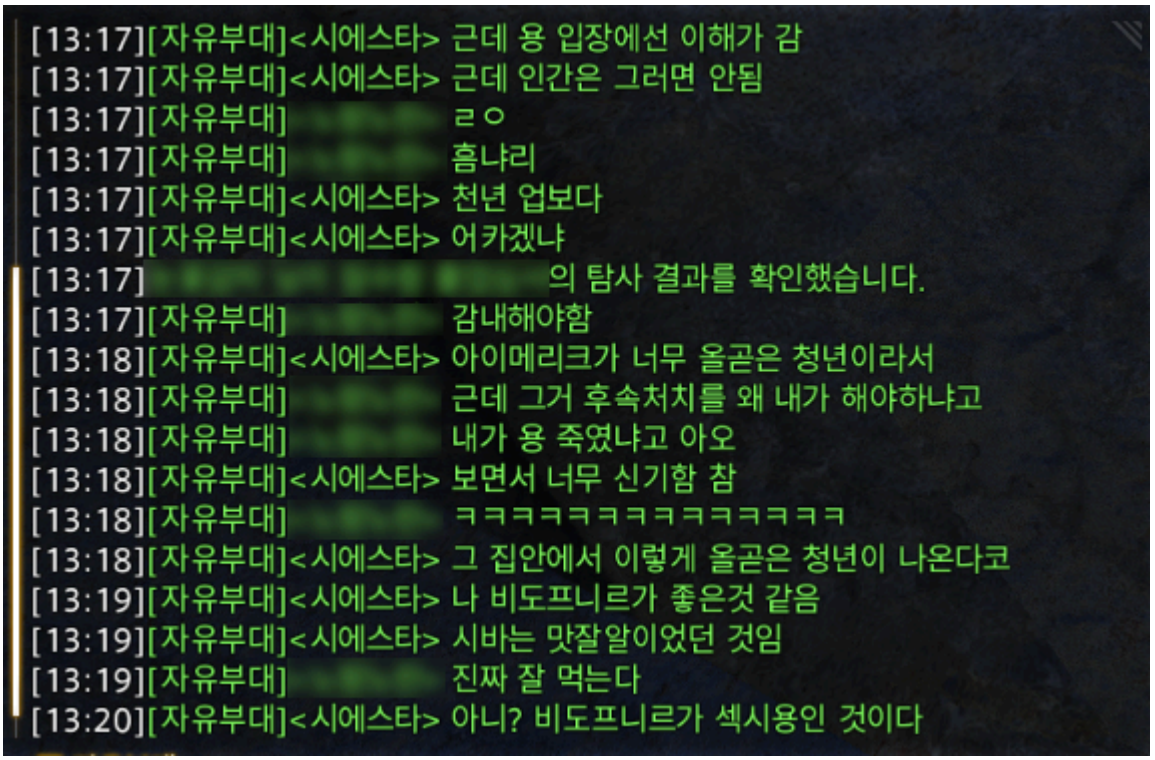
3.3~3.5는 한번에 몰아봐서 뭐라 적기엔 주절거림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사실 살짝 귀찮음) 자세한건 실시간 반응 타래ㄱㄱ

매작 도와달라고 해서 봉황까지 얻고나니까 더 할 거 없냐고 물어서 이때다 싶어서 기공성을 조풀하고 쭉 밀었어요. 스토리 재밌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였슨...

잡담

만쥬: 많이 봐줬다. 빨리 칠흑 봐줘

맹미: 나 이제 창천이라고



비도프니르 드림? 같은 걸 하고 싶게 만드네요.

후기

인간이 너무 추악하네요.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확장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만 하겠죠.

고급만쥬

아

멘붸 보고있구나

재밌겠다

오후 6:36



힘들다 진짜

오후 6:46

제겐 투프시마티가 다소 사신미쿠?
같이 느껴져요

오후 6:47



오후 6:52



영상 끝에 갑주입은 제노스 나와서 붐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주 안쪽, 그것도 하관 클로즈업 해줘서 기겁하고 소리지름

삐: 진짜 싫어하신다

맹: 아니 진짜 부담스러워요;

삐: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홍련 내내 팝디비를 견디셔야할 것

맹: 엉

시작하기 앞서... ▶바로가기

한국인에게 수많은 붐따를 얻은 그것.

제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사실 닌자 잡퀘(~50) 하면서도 살짝 불편한 감이 있었어서...

하지만? 스토리 자체로는 창천보다 홍련이 더 재밌었다는 지인분도 계셔서 일단 한번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ㄴ 창천이 그렇게 끝날줄은 몰랐지.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잡퀘스트

나이트: 와 투기 대회래요. 하지만 난 주인공인데 나한테 덤비겠다고?/ 맹: 와 혹시 검은 연꽃이 알디스인가요? 비케: 이래서 눈치빠른 오타쿠란;/

전사: 내 곰돌이랑 나랑 여자 취향이 같다고?.../



언니 저한테 여지 주지마세요 저 진짜 설렌다고요./

암흑기사: 리엘이 이제 시두르구 다룰줄도 알고 많이 컸네요 우리 애기.../

건브레이커: 더러운 제국놈들 킷!!!/

용기사:

몽크:

사무라이:

닌자: 진짜 골때리네요. 걍 닌자 잡쿼 자체가 웃김 체급이 큰듯?

리퍼:

백마도사:

학자:

점성술사:

현자:

음유시인:

기공사:

무도가:

소환사:

흑마도사:

적마도사:

메인 퀘스트



드가자 코리안 붐따 스토리로

제노스랑 처음으로 맞짱을 떴는데요 저 풀피였는데 이자식 핵 썼나봐 갑자기 저 기절걸리고 니가 졌다 해서 얼탱 터졌는데요. 그래도 전 회귀?새싹이라 나중에 제노스에게 죽빵을 갈기는 미래가 있는 걸 알아서 그래도 엄청 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현역으로 하신분들은 좀 빡칠만할듯.

진행하면 진행할 수록 알라미고는 이용당했나요? 라는 생각만 들고 있는데 뒷 내용이 어떨지...
지금은 '의심되...'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대충 신생이랑 다르게 확장팩마다 여러가지 지역을 줘야하고 그걸 스토리랑 묶어야하다보니 파판의 고질병중 하나인 것 같긴함. 뭔가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것보다 긍정적이었던 경험을 더 바라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즐거우려고 하는 게임이고 이후로 확장팩도 많이 나왔는데 이미 지나간 확장팩 보면서 나쁜 느낌 잔뜩 받아가는 건 손해같음. 세월의 흐름이 제게 먹금력을 주나봅니다. 근데 확실히 현역으로 즐겼다면 지금보다 더 불쾌하게 느껴질만한 내용이 꽤 있는 듯?

시작하기 앞서...

시기상 이때 캐릭터 생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효월 오기 직전? 물론 살짝 체험해보고 너무 게임이 안 맞아서 접었지만요. 제가 과연 드림을 할지 궁금하네요...

롤퀘스트

메인 퀘스트

잡담

후기

시작하기 앞서...

중후반부 부터 파판을 제대로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효월싹이거든요. 부캐로도 잔해별 갈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별새 얻으려면 어쩔 수 없죠. (TMI 맹미는 본캐 별새를 얻기위해 NPC와 1일 최소 1회의 잔해별을 돌았던 전적이 있다.)
ㄴ 근데 부캐 컨셉상 굳이 막 얻을 필요가 없을 것도 같다. 있으면 좋지만.

롤퀘스트

메인 퀘스트

잡담

후기

시작하기 앞서...

본캐로 스킵하면서도 길어서 볼륨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오래걸릴지...

롤퀘스트

메인 퀘스트

잡담

후기